

21세기는 왕도의 일중·미중 제후 시대로 (4)

◎ 호금도 정권의 1년은 평시의 수십년만큼이나 중요

현재의 호금도(胡錦濤) 정권은 1기가 5년, 2기는 10년 계속 된다. 이 호금도 정권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가장 좋은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철저하게 일본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손을 잡을 속 마음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파트너로 보고 있는 사람이다. 나와 친한 중국 친구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호금도의 진짜 속마음을 알면 일본과 중국 간의 문제는 바로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다. 서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게, 서로 이해를 강화하여 철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호금도 정권의 1년은 평상시의 수십년과 맞먹을 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그동안에 중국의 정치 체질도 왕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패도로 갈 것인가를 결정할 때이므로, 왕도를 가도록 일본이 큰 역할을 발휘하여 중국과의 우호 조약을 튼튼하게 결정할 시점이다.

그러나 일본 외교의 현상은 잘 아시는 바와 같다. 예컨대, 국제연합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대사를 모아 큰 캠페인을 하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가장 중요한 아시아로부터 한 나라도 지지하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대하고 있는 미국도 정면으로 반대하는 상황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제연합의 경비 부담금이 너무 많다고 말하기 시작하였

다. 세계 제2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상임 이사국도 시켜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분담금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었다.

이런 짓을 하면 일본 외교의 권위는 품위가 떨어질 것이다. 마치 돈의 힘으로 영향을 주려고 하는 듯이 보인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만큼 크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왜 지지해 주지 않을까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다시 생각해 보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

◎ 반일(反日)의 움직임에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예컨대, 얼마 전에 중국 전국에서 반일 운동이 크게 일어나 불매 운동으로 퍼질 것 같아 큰일 났다고 많은 일본 신문이 보도하였다. 그러나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일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뭔데 그리 떠들지’라고 말할 것이다. 일본에서 떠드는 것은 일당독재의 나라에서 언론 통제가 엄격하므로 인터넷이 운동을 시작하면 말릴 수 없다고 제 맘대로 상상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중국의 인터넷 보급은 1억명이고, 휴대 전화는 3억명으로 세계 1위이다. 국제연합의 상임 이사국에 반대하는 데모라고 해봤자, 그 중의 몇 명이 데모에 참가했는지도 알 수 없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사태를 보고 받자 바로 중국의 외무차관이 아남 대사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고 바로 수습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조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음날 일본의 외무대신이 사죄하라, 배상하라고 한 것이 신문에 나와 있었다.

중국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리서서 침착하게 상황을 본 다음에 판단이 서면 조치를 취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건 기사적인 발상으로 움직이면 신중하지 못하여,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수상이 야스쿠니 참배만 선처하면 아직 미결의 문제는 한 번에 해결

일본이 안보 이사국에 들어가는 문제에서 호금도의 속 마음은 무엇보다도 일본을 추천하고 싶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한 번에 일중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싶어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야스쿠니는 참배 안하면 좋겠다. 만일 참배하면 중국 인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일본은 반대로 하고 있다. 수뇌 회담에서는 선처를 약속해 놓고 일중 관계를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두 나라의 우호 협력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고 새삼스럽게 밝혀 놓고는 국회에서 반대되는 답변을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곤혹스럽게 된다.

최근의 일중 외교를 보고 있으면, 일중 두 나라가 서로 상대를 보는 견해나 잘못이 뒤엉켜, 겨우 유도해 낸 분위기가 역효과가 되어 곤란하게 된다. 중국의 내 친구는 야스쿠니 참배만 안하면 일중 간에 걸려 있는 문제는 사흘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고이즈미(小泉) 수상이 왜 야스쿠니 참배 문제를 그토록 고집하고 있는지는 최근의 수상 담화 두 개에서 분명하게 되었다.

하나는 최근의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에 가진 기자 회담에서 속심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게 미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의 동맹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중국이나 한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다.”

둘째로는 민주당 대표 마에하라 씨가 중국을 방문한 직후의 발언에 대하여 ‘마에하라 민주당 대표는 야스쿠니 문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호금도 국가 수석을 만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중국 위협론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봐도 알듯이 야스쿠니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맘에 안맞는 문제를 내놓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내가 설혹 야스쿠니 문제를 양보하여도 중국은 다른 문제를 반드시 내놓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였다.

이상이 고이즈미 수상의 두 가지 견해로 그의 속마음이 분명하게 되었다.

다만 약간 그 자신이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감히 지적해 보면, 하나는 야스쿠니 참배 문제에서 중국이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수상 자신이 참배하는 것을 문제로 하고 있으며, 그 외 사람의 참배는 문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마에하라 대표와 중국의 국가 주석이 안만났다는 문제는 중국 위협론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마에하라나 고이즈미 수상도 단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경솔하며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표인 고이즈미 수상과 취임한지 얼마 안되는 야당 대표를 같은 수준으로 다룰 까닭이 없다는 것 정도는 상식이다. 위협론이라는 것은 전혀 제멋대로의 추측이며, 책임 없는 일부 평론가 수준의 구실이다. 왜 그만큼 야스쿠니를 고집하는지, 국내외의 강한 여론에 물려 마침내 속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고는 하나, 한 나라를 대표하는 수상으로서의 감각, 견식, 책임감에 대하여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